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6호 【루계 제26050호】 주체 107 (2018) 년 6월 25 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모두다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계속전진 앞으로!

전민총돌격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

각지 당조직들에서

9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각지 당조직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식의 해안도시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을 기적과 위훈에로 추동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돌격대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며 내세운 공사목표들을 기한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시려단 정치부의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맡겨진 전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자고 호소하면서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고있다. 이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을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뚫고나가며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강원도려단 정치부의 일군들도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며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도록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켜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실천으로 보여주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으로 하여 지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그 어디서나 놀라운 위훈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되는 속에 공사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평안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당조직에서는 접도와 큰매륙도, 작은매륙도를 련결하는 수천m의 방조제공사를 끝낸 기세드높이 접도와 대삼곶도를 련결하는 방대한 방조제공사를 기한전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고있다.

한편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수백세대의 살림집건설을 공화국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내기 위한 돌격전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본때를 과시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정에 맞게 잘 해나가고있다.

한편 3대혁명소조원들을 비롯한 기업소자체의 기술력량을 총발동하여 맡겨진 대상설비생산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게 하고있다.

염주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우뻥이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전을 드세게 벌리고있다.

신천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농장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기백있게 벌리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선동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협동벌마다에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청단군당위원회에서는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온 군에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이곳 당조직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을 다른 시, 군당조직들에서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하여 도적으로 당면한 영농실적이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높아지고있다.

이밖에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당조직들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단위의 특성에 맞게 잘 짜고들고있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에로 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각지 당조직들의 이런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지금 조국땅 방방곡곡에서는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본사기자 허일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각지 대학, 학교들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 대학들과 학교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사회주의경쟁은 전국의 모든 교원들과 학생들속에서 자질향상열풍, 학습열풍을 일으켜온 나라가 교육열기로 들끓게 함으로써 올해를 과학교육사업에서 또다시 비약하는 해, 과학교육발전의 발판을 튼튼히 다지는 해로 되게 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 1월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과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을 도들에 내려보내여 그들이 해당 지역의 당, 정권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사회주의경쟁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면서 이 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될수 있게 적극 이끌어주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각지 대학, 학교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단위별, 지역별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사회주의경쟁요강에 따라 각 대학들과 학교들이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학생들속에서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도 일대 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다.

각 대학, 학교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교원자질향상에 우선적인 힘을 넣고있다. 먼저 교원들속에서 학습열풍을 일으키도록 하면서 실리있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창조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밀고나가고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창조된 우수한 교육방법들을 경험발표회와 교수경연 등을 통하여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짜고들어 내밀고있다. 또한 학생실력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방법론있게 내밀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져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이 일고있다. 뿐만아니라 해당 지역의 당, 정권기관들과 후원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다기능교실들의 수준을 높이고 대학, 학교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 등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속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1단계기간에 보통교육부문에서 진행되고있는 사회주의경쟁을 놓고보면 각급 학교들에서 이미 분과별, 학급별로 경쟁순위가 결정되였고 현재 시(구역), 군적인 범위에서 학교별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앞으로 도적인 범위에서 시(구역), 군별사회주의경쟁으로 넘어가게 되며 다시 전국적인 범위에서 도(시)별사회주의경쟁으로 확대되고 도별순위가 결정되게 된다.

고등교육부문에서도 대학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금 해당 지역의 당, 정권기관들의 관심과 후원사업으로 하여 경쟁열기가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교육부문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경쟁은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빛내이기 위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며 나라의 교육발전을 적극 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다.

본사기자 공로혁

밀보리가을 성과적으로 결속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보리가을을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로 낟알털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를 더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밀보리가을과 낟알털기, 뒤그루작물심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시, 군들에 나간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밀보리가을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면서 앞그루작물가을을 적기에 질적으로 와닥닥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와 함께 로력조직을 잘하여 낟알털기와 뒤그루작물심기를 따라세우도록 하였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앞그루작물가을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진데 맞게 모든 농장들에서 밀보리가을을 일정계획대로 내밀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일군들은 포전들에 나가 곡식들의 여문 정도를 알아본데 기초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당면한 밀보리가을에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그리고 낟알털기를 따라세울수 있게 탈곡기들을 제때에 수리하도록 하였다.

도안의 농장들에서 밀보리를 적기에 가을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봉산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였다.

군의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당의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해설선전하면서 이신작칙의 사업기풍으로 대중을 밀보리가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신심드높이 분발해나선 농업근로자들은 밀보리가을을 짧은 기간에 결속할 드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포전마다에서 힘찬 돌격전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밀보리가을과 낟알털기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황주군에서도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밀보리가을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일군들은 알곡증산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일 일념안고 힘차게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생산열의에 맞게 밀보리가을을 적기에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매일 많은 면적의 밀보리를 가을하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송림시에서도 밀보리가을에 력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연탄군, 중화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들에서도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밀보리가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밀보리가을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를 늦춤이 없이 낟알털기와 뒤그루작물심기를 적기에 하기 위한 투쟁을 짜고들어 힘있게 벌리고있다.

성과가 오를수록 도에서는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대중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계속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생산돌격전에 박차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과학기술을 앞세워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련이어 창안도입함으로써 생산장성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 많은 종업원들이 공부하도록 하고있으며 과학기술보급실을 더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고치걸면제거공정과 선별공정을 결합한 여러대의 기계들을 제작완성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로력과 전기를 훨씬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견기들에 PLC에 의한 고치삶기자동온도조종체계를 확립하고 고치공급장치를 자동화하여 명주실의 질을 개선하였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900여종의 부속품과 기료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발양시켜 재조기들에 대한 전력공급계통 등을 합리적으로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였다.

공장에서는 이불기술준비실을 새로 꾸려 여러가지 이불형태도안과 무늬도안들을 부단히 갱신함으로써 인민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으면서도 계절에 따라 리용할수 있는 20여종의 질좋은 이불들을 생산하고있다.

한편 평양기계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평양방직기계공장의 기술자들과의 련계밑에 위생용품생산설비를 더 제작하여 생산능력을 높이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이룩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열의에 넘쳐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신의주화장품공장에 대중적기술혁신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우리 나라 화장품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이 뜻깊은 올해에 들어와 생산활성화에 이바지할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은 공장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기술혁신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운데 맞게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기술혁신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과학기술이자 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비누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체적지혜로 가공2계렬공정을 복구하여 비누생산을 종전에 비해 1.5배로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또한 련판부문 연구사들의 방조밀에 초미분쇄기, 규산소다건조가열기를 개조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많은 로력과 전기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화장품직장에서는 현행생산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기술개건에 힘을 넣어 분장용화장도구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았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기초화장품직장에서 수지병주입기, 미안막주입봉합기 등의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생산성을 훨씬 높이도록 하였다.

유리병작업반에서는 설비를 개조하여 병건조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상표지작업반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직장과 작업반마다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풍이 차넘치는 속에 공업시험소의 연구사들이 탐구전을 힘있게 벌려 주름을 방지하는 얼굴세척제와 손크림 등 여러가지 기능성화장품들을 새로 개발하였다.

공장종업원들은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서두수3호발전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강계교원대학건설 적극 추진

강계교원대학건설에 떨쳐나선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인재가 바다를 이룰 우리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보며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교육사업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강계교원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대학으로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건설력량과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대학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교원대학을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교원양성기지의 특성에 맞게 일떠세우기 위한 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대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세멘트와 강재, 골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선행공정인 철근가공 및 조립과 휘틀제작을 맡은 전천군대대와 시중군대대의 전투원들은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일손을 놓지 않고있다.

교사건설을 맡은 희천시대대, 만포시대대, 송원군대대, 위원군대대, 고풍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치렬한 공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방대한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벽체골조와 층막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낸 기세로 내부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내부공사에 여러가지 앞선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기숙사건설을 맡은 강계시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재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세멘트와 철근, 골재를 비롯한 자재들이 선행되는데 맞게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이고있다.

보조건물과 체육관건설을 맡은 도급단위 돌격대 1대대와 2대대의 돌격대원들도 벽체골조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도급단위 일군들과 강계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교원대학건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수십만마리의 새끼명태를 놓아주었다

함경북도 수산부문에서

양어와 양식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 수산부문에서 명태양어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련진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수산부문의 과학자들은 또다시 10여만마리의 새끼명태를 놓아주었다. 그리하여 올해에만도 수십만마리의 새끼명태를 방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힘있게 벌리며 양어와 양식을 근기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도수산관리국일군들은 련진수산사업소에 내려가 현실료해를 깊이있게 진행하면서 새끼명태방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과학자들은 동해어장에 명태떼가 흐를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새끼명태방류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련진수산사업소 일군들은 지난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페기있게 해나갔다. 수산사업소에서는 해당 단위들과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새끼명태배양장과 먹이배양장을 다시 꾸리였으며 필요한 설비와 기구들도 잘 갖추어놓았다. 또한 바다물과 랭수공급체계도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새끼명태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련진수산사업소와 독연대봉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은 명태양어에서 선결조건으로 나서고있는 종자명태잡이에서 성과를 올리였다.

자체의 힘으로 배수리기일을 앞당기고 필요한 어구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어로공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종자명태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련진수산사업소 배양작업반의 배양공들은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뛰고 또 뛰였다. 이들은 새끼명태의 생육조건에 맞는 온도와 먹이, 수질조건을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새끼명태의 사름률을 높이고 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운전공들은 정확한 수질조건과 온도보장을 위해 양수기를 비롯한 설비관리에 힘을 넣었다.

수산성과 도수산관리국에서는 새끼명태생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더 잘 보장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해당 단위의 연구사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명태인공알받이와 새끼명태기르기 등 새끼명태방류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연구사들은 어로공들과 어로작업도 함께 하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경험을 합쳐 연구사업도 심화시키면서 명태인공수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련진수산사업소에서는 새끼명태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늘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수십만마리의 새끼명태를 성과적으로 방류한 함경북도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 과학자들은 새끼명태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1950년대의 그 정신, 그 투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950년대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과 불멸의 위훈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군자혁명사적지,

갱안의 여러곳에 불어있는 전투적구호들, 수십년전의 모습그대로 보존되여있는 선반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군자리에서는 원쑤격멸의 함성파도 같이 낮에 밤을 이어 선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어제날의 선반소리는 들을수 없어도 년대와 세기를 넘어 거대한 진폭으로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켜주는 메아리가 있다.

혁명의 전세대들이 발휘하였고 그 후대들이 꿋꿋이 이어가는 1950년대의 투쟁정신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영웅적인민의 긍지높은 신념의 선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신,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힘에도 비할수 없는 최강의 힘이며 우리 새 세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로병들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필승의 신념을 간직한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

이것은 승리와 영광의 행로를 광휘롭게 수놓아온 우리 혁명이 력사에 새긴 철리이다.

1950년대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도 치르어야 하였고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도시와 농촌, 공장들을 복구건설하며 농촌경리와 도시의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회주의혁명도 하여야 하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자립경제의 토대도 마련하여야 하였다.

안팎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 정치투쟁인것으로 하여 그때의 난관과 시련은 참으로 엄혹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불굴의 신념으로 싸워 원쑤들을 쳐부시고 당과 수령을 보위하였고 조국을 수호하였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창조와 혁신의 정신, 바로 이것이 1950년대의 투쟁정신이다.

하다면 그 위대한 정신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것인가.

전화의 나날 어느 한 고개길에서 우리 수령님과 평범한 한 농민사이에 오고간 뜻깊은 대화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

수령님: **《그래 이 란리통에 김일성장군은 왜 찾아갑니까?》**

로인: **《왜 찾아가다니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소.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지요. 우리 농군들이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보기는 평생 처음이였쉐다. 바로 이 황소도 해방후 장군님께서 주신 3천 2백평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맨것이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소. 장군님을 찾아가야지요.》

수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고 따르는 로인님의 지성이 여간 아닙니다.》**

로인: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올수 있을는지요?》**

수령님: **《만나지 않구요. 꼭 만날수 있습니다.》**

…

이 감동깊은 이야기는 준엄한 1950년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의 밑바탕에 과연 어떤 숭고한 사상감정이 놓여있었는가를 얼마나 감동깊이 전해주고있는것인가.

일제의 식민지적착취밑에 신음하던 이 조선을 구원해주시고 이 땅에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새세상을 일떠세워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시되는 꿈같은 인민적인 시책들, 날마다 커만 가는 열화같은 인민사랑속에서 조국이란 무엇이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 실생활로 체험한 우리 인민이였다.

바로 그래서였다.

석수가 끝없이 떨어지는 험한 갱도속에 설비들을 차려놓고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주는 기개로 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까지 생산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귀중한 조국을 위해 18살 꽃나이청춘도 서슴없이 바치며 이 나라의 한치의 땅을 지켰고 그처럼 어려운 전쟁속에서도 수령님께 복구건설은 념려마시라고 산악같은 힘을 드린 우리 인민,

한없이 고마운 우리 수령님의 품, 그 진정한 삶의 터전을 절대로 원쑤들에게 빼앗길수 없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로써 조국을 사수하였고 재더미만 남았던 빈터우에 전화의 그 정신, 그 투지로 기적의 천리마가 세기의 하늘가에 나래치게 한 격동의 시대를 탄생시키였다.

어느덧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서 미증유의 사변을 안아온 위대한 승리의 년대, 격동적인 투쟁의 년대인 1950년대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최후승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어떤 정신과 투지로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삶과 투쟁의 진리로 깨우쳐주고있다.

1950년대의 투쟁정신!

이 영웅적투쟁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갈 때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올수 있다는 철의 신념으로 온 나라에 1950년대의 투쟁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이끌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50년대의 투쟁정신은 항일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투쟁정신으로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그때처럼 온갖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였기에 불멸할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용사들이 간직하였던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적극 따라배우자》, 《조국해방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것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여야 한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계승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고 사상교양사업을 위한 거점들도 훌륭히 꾸리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전체 군대와 인민을 1950년대의 영웅적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끝없는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1950년대의 투쟁정신이 온 나라에 세차게 나래치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그 자랑찬 투쟁정신은 천만의 심장속에 신념의 기둥으로 억세게 뿌리내리고 우리 사회의 면모와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모진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이 그 모든것을 과감히 박차고 억세게 일떠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을수 있은것은 결코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1950년대의 투쟁정신이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난과 시련의 장막을 산산조각내고 이 땅에 최후승리를 위한 대통로를 활짝 열어놓을수 있었다.

우리 다시한번 새겨보자.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따라 이 땅에 펼쳐진 거창한 승리와 기적적인 변혁들을.

전화의 그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길에서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고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1950년대의 그 정신, 그 투지로 현대적인 공장들과 거창한 발전소들,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조국땅 방방곡곡에 수풀처럼 일떠세우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장엄히 펼칠수 있었다.

정녕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인 일심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사회주의조국의 국력이 천백배로 강화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1950년대의 영웅적투쟁정신은 더욱 꿋꿋이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해주시고 전국각지의 인민군렬사묘들을 잘 꾸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에서 우리 천만군민은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안아올 래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1950년대의 그 정신, 그 투지로 눈부신 비약과 창조의 불꽃을 날리고 1950년대의 영용한 사람들처럼 땀과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을 사랑하고 빛내이며 가는 길 험난해도 1950년대의 락천가들처럼 만난을 헤쳐 최후승리의 함성을 높이 울리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1950년대의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살며 싸워 최후승리를 반드시 앞당겨오리라!

바로 이것이 위대한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에 산악같이 일떠선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더욱 뛰게 하는 불타는 맹세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창작가들이 받아안은 고귀한 지침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불리워지는 명곡들중에는 전화의 나날에 창작된 전시가요들도 있다. 그 한편한편의 전시가요들은 결코 개별적창작가들의 사색과 노력의 산물만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 노래들이 세상에 태여나기까지의 감동깊은 사실을 적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시가요 〈전호속의 나의 노래〉나 〈아무도 몰라〉, 〈샘물터에서〉와 같은 노래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고있습니다.》

주체39(1950)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신 협주단성원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격정을 금치 못하는 그들의 어깨를 다독여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그만하고 공연을 보자고 하시였다.

장내에 감격의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 공연의 막이 올랐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된 공연은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보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곁에 앉아있는 협주단의 일군과 창작가에게 아주 훌륭하다고 하시며 조선의 예술은 살아있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조선의 예술은 살아있다,

협주단성원들의 가슴은 마냥 세차게 부풀어올랐다.

예술공연이 끝나자 협주단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의 공연은 영웅적인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으로 설레이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런 작품을 써야 인민군전사들과 후방인민들을 성스러운 투쟁에로 더 힘차게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주단지휘성원들에게 전시가요창작방향을 명백히 제시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창작가들이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현실을 생동하게 담은 좋은 작품을 내놓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리자면 아늑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전사들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작품을 내놓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피끓는 가슴에 새기고 현실에 들어간 창작가들은 싸우는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의 생활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이렇게 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과 투쟁기풍을 진실하게 반영한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전호속의 나의 노래》와 같은 전시가요들이 태여나 널리 불리워지게 되였으며 싸우는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을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시가요들에는 현란한 시어도 없지만 사랑하는 조국과 생활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이 이러한 전시가요들을 많이 부르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진정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태여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더불어 이 땅에 끝없이 울려퍼지는 전시가요들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랑만을 더해주며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일권

영웅의 고향집이 전하는 이야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영웅!

영웅이 장렬한 최후를 마친 때로부터 어느덧 60여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오늘도 조국과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18살의 꽃나이청춘으로 영생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는 전승세대의 모습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와 같은 유명무명의 영웅들의 군상으로 소중히 새겨져있습니다.》

영웅의 체취가 슴배여있는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겨안게 되는것은 결코 그의 빛나는 위훈만이 아니다.

하다면 년대와 세기를 넘어 영웅의 고향집이 전하는 사연은 과연 무엇이던가.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영웅의 어머니와 뜨겁게 상봉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훌륭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인데 오래오래 앉아계셔야 한다고 하시며 사려깊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리수복영웅이 공부하던 방도 보아주시였다.

전화의 나날에 추억을 얹으시고 리수복영웅의 최후의 장면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리수복영웅의 투쟁자료를 가지고 후대들을 교육교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떠나실 때에는 영웅의 어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어머니, 평양에 오시면 우리 집에 들리십시오라고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이 전하는 또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을 찾으시였다.

영웅의 어머니에게 다정히 인사를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이 공부하던 방을 돌아보시였다. 방안에는 영웅의 사진과 함께 중대군인들이 보내온 축기들이 걸려있었다.

숭엄한 감정으로 방안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책꽂이에서 리수복영웅의 체취가 어린 책과 학습장들을 뽑아드시였다.

영웅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시며 학습장을 펼쳐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웅의 어머니에게 모두들 리수복영웅이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배우러 왔으니 우리에게 영웅의 지난날을 이야기해달라고 청하시였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신 그이께서는 공화국영웅의 금별메달과 영웅증서도 보아주시며 참으로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리수복영웅이 세운 공적은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영웅의 고향집을 가슴속깊이 새겨두시려는듯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고 어머니품을 떠난 아들은 하나이지만 오늘 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리수복영웅은 이 나라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영웅의 넋을 길이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를 고이 안고 길이 전해주는 리수복영웅의 고향집.

영웅의 고향집은 전화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 이렇게 새겨주고있다. 조국을 위하여 바친 영웅의 삶은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품에서 영생하며 인민과 더불어 길이 찬양된다는것을.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고산진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김영남동지가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마뿌또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

필리페 자씬뚜 뉴씨각하

나는 모잠비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7(2018)년 6월 18일 평양

회상기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우시군 가하리당조직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학습을 정상화하도록 하고있으며 독보와 해설모임, 연구발표모임을 통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하고있다.

일군들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고있다.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일군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의 쉴참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해설을 실감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리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불굴의 신념을 깊이 체득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최창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주신 은혜로운 손길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

영예군인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로 떠받들고있는 어머니 우리 조국,

얼마전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을 돌아본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온갖 사랑을 베풀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절감하면서 그 일단을 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예군인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전투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 혁명전사들이며 우리 당이 아끼는 보배들입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공장의 한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아주신 때로부터 벌써 50년이 되였다고 하면서 못 잊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57(1968)년 6월 25일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의 국가수반일행과 함께 공장을 찾으시였다.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영예군인들의 모습을 깊은 감동속에 바라보는 외국의 국가수반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에서는 영예군인들이 일을 하지 말고 편안히 휴식하라고 권고하지만 그들은 휴식하지 않고 모두 공장에 나와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 영예군인들을 자랑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영예군인들을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옹심깊은 사랑의 세계가 어려와 뜨거움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예군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수령님께서는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영예군인들은 모두 귀중한 동무들이라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공장영예군인들에게 돌려주신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혁명사적교양실에서 계속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공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한 수행일군이 다음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 공장에서 대표단과 헤여지겠다고, 영예군인들과 이야기를 좀더 하다가 가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도 영예군인들도 어버이 그 사랑에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목메여 가슴들먹이는 공장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전에 왔다가도 섭섭하게 헤여졌는데 우리 기념사진이나 한장 찍자고 하시면서 영예군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데려오도록 하라고 옹심깊이 헤아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긴 영예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한없는 기쁨으로 설레였다.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음에 걸리는것이 있으신듯 촬영을 중지시키시고 뒤에 있는 동무들이 나무그늘때문에 사진이 잘되지 않을것 같은데 자리를 옮겨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기념촬영은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되였다.

그날의 공장구내에 펼쳐졌을 감동적인 화폭을 그려보는 우리의 가슴에서는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랐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 모셔진 벽면앞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공장에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 활기에 넘쳐 일하는 영예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것은 주체57(1968)년 2월 어느날이였다고 한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공무작업반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선반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 10년전에 보내주신 선반이였다.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의 영예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반을 모체로 만년필가공설비를 하나하나 만들었으며 영예군인들이 만년필을 만들면 자기들은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줴치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궤변을 짓부시고 자체의 힘으로 만년필생산을 다그쳤다.

이런 사실을 료해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몇대의 공작기계를 가지고 공장을 이처럼 훌륭히 꾸려놓은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이 공장은 자력갱생의 정신이 아주 높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영예군인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다 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현장의 곳곳에 사랑의 자욱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 공장뜨락에 나서시였을 때는 벌써 어둠이 깃들고있었다.

하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간이 가더라도 영예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시며 떠날념을 하지 않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영예군인들, 그 가족들이 화목한 한가정과 같은 자리가 마련되게 되였던것이다. 사업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섭섭해하겠는데 다 손목이나 잡아보자고 하시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서야 공장을 떠나시였다.

언제나 영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그후에도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이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두번에 걸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고 여러명의 로력영웅을 배출한 공장으로, 2중3대혁명붉은기와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받은 공장으로 영예를 떨치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세상에는 전쟁이나 군사복무기간 전투임무수행도중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을 영예군인으로 특별히 우대해주고 그토록 따뜻이 보살펴주는 품이 그 어디에 있었던가.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걸어온 공장연혁사의 갈피갈피를 더듬어보며 우리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있어 영예군인들의 행복한 삶이 있음을 다시금 절감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영예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자양분으로 하여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있다.

우리는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이 있어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의 영예군인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도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라는 값높은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리라는것을 확신하며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강원남

행복의 열매 무르익는 땅에서

당정책관철의 승전포성 높이 울리는 성천군을 돌아보며

성천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성천약밤, 성천담배이다.

오랜 세월 성천땅의 특산으로 간주되여온 자랑이였다. 그러나 오늘 성천은 새 자랑들이 가득한 유명한 고장이 되였다.

눈에 보이는 자랑도 많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소중한 의미들이 걸음마다 마음을 후덥게 해주는 땅,

나라의 중부지대에 위치한 이 산간군은 과연 무엇으로 하여 벅찬 시대를 편답해온 우리의 가슴을 그리도 세차게 격동시키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며 붓을 들고싶은 충동으로 마음 불타게 하였던가.

당의 뜻 꽃피우니 만복이 넘친다

나라의 200분의 1, 결코 작다고 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당과 국가의 말단지도 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는 지역적거점이다.

나라가 비약한다는것은 200개의 시, 군이 비약한다는것이며 강산을 진감하는 로동당만세소리는 지역적거점인 군에서부터 울려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유명한 군들이 많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으로부터 황금산의 새 력사가 창조된 창성군, 유명한 과일산지 과일군…

우리 시대에 이르러 성천군은 무엇으로 유명해졌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조국은 눈부신 속도로 비약하고있다. 어디서나 새 기적이 창조되고 문명의 화폭들이 펼쳐진다. 진보와 번영들의 이름은 다르고 창조의 주인공들은 같지 않아도 그것이 안고있는 의미는 하나다.

가장 우월하고 정당한 우리 당정책이 현실로 꽃펴난 화폭!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땅 어디서나 후덥게 안아보는 이 칠리를 더욱 력력히 새겨안게 되는 땅이 바로 성천군이다.

아마도 오늘 성천군의 첫 자랑을 짧으라고 하면 농사를 잘 짓는 자랑일것이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척박한 비탈밭들과 랭습지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수 없었던 지역이 오늘은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군이 되였다. 하늘이 준 덕인가, 아니다. 당의 농업정책을 꽃피워 누리는 덕이다.

성천군은 과학농사로 유명하다. 읍농장의 큰 포전으로부터 산골농장의 마지막포전에 이르기까지 과학농법이 철저히 구현된 성천군은 마치 거대한 과학농사시험장을 방불케 한다.

강냉이여러개제모아심기, 소식재배, 잎덧비료주기, 잎자르기…

군안의 어느 포전에서나 꽃피는것이 과학농사이야기이고 그 덕을 보는 자랑이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당의 두벌농사방침도 성천군에서는 놀라운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군적으로 30%의 밭면적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세벌, 네벌농사가 지금은 70%면적에 도입되여 알곡생산에서 놀라운 상승을 이룩하는 도약대가 되였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련속 두해째 도적인 최고다수확자가 여기 성천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지난해 한정보 남짓한 포전에서 20t이 훨씬 넘는 다수확을 거두어 온 나라를 놀래운 온정협동농장 청년작업반 박춘옥녀성의 포전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배우러 찾아온다.

그때마다 그는 말한다. 《이게 다 과학농사의 덕이고 세벌, 네벌농사덕입니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벌방농사 못지않게 중요한것이 산간지대 농사이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곡창지대들과 함께 산골농장들도 찾고찾으시며 밭농사를 잘 지을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성천군에도 우리 수령님의 그런 불멸의 발자취가 력력히 새겨져있다.

날이 저물도록 항풍협동농장의 비탈밭을 오르내리시며 농사정형을 알아보시였고 때로는 뙤약볕이 내려쪼이는 밭머리에서 수확고를 높일 묘안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

농경지의 90%가 밭이고 그중에서도 60%이상이 비탈밭인 성천군을 산간지대 농사의 본보기로 만드시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구상이고 념원이였던것이다. 그 념원, 그 유훈이 현실로 꽃펴난 오늘의 성천땅을 보시면 우리 수령님 얼마나 기뻐하시랴.

당이 안겨준 백승의 보검을 들고 눈부시게 비약하고 전진하는 자랑이 어찌 다수확포전들에만 넘치는것이던가.

우리가 선 이곳은 읍거리의 온실남새매대이다. 오이, 도마도, 쑥갓, 부루, 배추… 신선한 남새가 매대에 가득차 싱그러운 향취를 풍긴다. 온실남새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덩지큰 남새온실을 건설하던 일이 엊그제같은데 그 덕을 본다고 누구나 기뻐한다. 이제는 겨울김장을 몇독씩 담그던 일이 옛말로 되였다. 남새온실에서 신선한 남새가 사철 쏟아지니 한겨울에도 푸르싱싱한 배추로 맛있는 김치를 담그어 먹는 새 풍경이 성천땅에 생겨났다.

우리 당정책은 행복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당정책대로만 하면 안아오지 못할 행복이 없고 이룩하지 못할 번영이 없다는것을 성천군은 자기의 산 모습으로 증명하는 당정책관철의 교과서와도 같다.

뜨락또르와 농기계수리는 물론 자기 고장에 흔한 원료로 효능높은 농약도 만들어내고 쓸모없이 버리던 폐설물에서 연유를 팡팡 뽑아내는 군농기계작업소를 돌아보아도 좋다. 산에 흔한 열매로 밤단졸임, 강정, 감홍주, 도토리단묵과 같은 특산물들을 생산하여 수도의 큰 상점에서까지 대인기라는 군식료공장의 자랑도 이만저만 아니지만 읍거리며 깊은 산골농장들에까지 제힘으로 일떠세운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은 또 얼마나 이채로운가.

뭐니뭐니해도 성천군의 제일 큰 자랑은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받들어 펼친 강하천들의 새 모습이다.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연 300여km의 하천들을 다스려 860여리에 달하는 제방을 쌓고 72만 8,000㎥의 하천바닥을 팠으며 수십만㎥의 석축을 하여 큰물로 류실되였던 근 100정보의 토지를 되찾고 1,800여정보의 토지를 보호.

얼마나 놀라운가. 정녕 얼마나 대단한가.

강하천들을 길들이니 군의 면모가 일신되여 좋고 큰물피해를 입을 걱정이 없어 좋으며 나라의 재부인 토지를 보호하여 좋고 랭습지들이 개량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어 정말 좋다니 우리 당정책이야말로 진정 행복의 천가지, 만가지 열매를 주렁지우는 만복의 씨앗, 번영의 밑뿌리가 아니랴.

저 하늘의 태양이 비치는 땅우에는 밝고 어두운 곳이 있어도 우리 당정책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는 내 조국땅우에는 외지고 뒤떨어진 곳이 없다. 어디 가나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고 아이들의 밝은 노래소리 울리는 성천군은 그것을 증명하는 산 화폭이다.

우리가 들어선 여기는 지난해 태양절을 맞으며 새집들이를 하였다는 온정리의 50세대 새 마을이다. 산기슭에 한무리의 학이 내려앉은듯 볼수록 아름다운 농촌마을, 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 큰 격정이 가슴을 친다. 문양고운 도배종이, 산뜻한 비닐레자 그리고 널직한 부엌에는 타일까지 붙인 이 멋진 집에 돈 한푼 내지 않고 들어서며 그만에야 눈물을 쏟았다는 이야기가 어느 가정, 어느 처마아래서나 뜨겁게 흐른다.

텔레비존에서 보아오던 꿈같은 행복을 저도 받아안았습니다, 이 손에 열쇠를 쥐여주며 행복하라고 축복해줄 때 너무도 고마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하며 올해에는 기어이 농사를 잘 짓고 우리 원수님께 고마움의 편지를 삼가 올리겠다고 울고웃는 한 녀성농장원, 우리의 가슴도 후더워진다.

수십년전 성천군에서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온정리를 잘 꾸려 리상적인 농촌마을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문명농촌의 선경우에 울리는 이 우렁찬 로동당만세소리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성천군의 새 자랑을 말할 때 군안의 어디서나 제일먼저 안겨오는 아이들의 정든 보금자리를 말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성천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불과 몇해사이에 더 멋지게 일떠세운 군안의 무려 수십개의 학교들과 분교들,

그 자랑안고 솟은 이 학교는 라성교교급중학교 창말분교이다. 불과 몇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교가 서고 교원이 있는 우리 나라, 이 세상 오직 사회주의 푸른 하늘아래에서만 볼수 있는 가슴뜨거운 광경이 지금 우리앞에 펼쳐져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산인 깊은 산골에 보란듯이 터를 닦고 솟아오른 아담한 분교,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가 반짝이는 창문마다 랑랑히 울리는데 새 학교의 처마우에 새긴 불덩이같은 글발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든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회주의 따스한 요람속에 태여나 복받은 삶을 누리는 산골마을아이들이 고마운 해님을 우러러 터치는 심장의 토로인듯.

아,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 땅은.

위대한 당의 뜻이 인민의 행복으로 꽃피고 만복의 씨앗인 우리 당정책이 더 좋을 래일을 기약해주는 사회주의 내 나라,

당정책을 번영의 등대로 하여 광명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길은 인민의 만복이 꽃피고 밝은 미래가 앞당겨지는 길인 동시에 조국의 힘과 위력이 백배해지는 참으로 소중한 길이다.

보라, 당의 뜻을 받들어 더 눈부신 행복의 락원을 보란듯이 가꾸어가는 성천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을.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이 벌어지는 이곳은 38동에 877세대의 새 집들이 동시에 일떠서는 읍지구의 살림집건설전투장이다. 착공의 삽을 박은지 불과 두달밖에 안되는데 새 살림집들이 어느새 담배잎모양, 병풍모양, 탁식모양의 이채로움을 한껏 자랑하며 완연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골조공사는 끝났고 벽체미장이 한창이다. 이 기세이면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하는 9월의 하늘가에는 새집들이기쁨이 한껏 넘치게 될것이라니 정녕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확언이라도 하듯 희한한 살림집조감도의 아래부분에는 새 집에 입사할 주인들의 이름이 벌써 보란듯이 나붙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크지 않은 산간군이 거의 1,000세대에 달하는 살림집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울것을 결심한것도 대단하지만 수백세대의 주민들이 동시에 철거를 보장하고 몇달후에는 그 자리에 그림같은 새 집들이 우후죽순의 기상으로 솟아오르는 이런 경이적인 광경이 도나 시도 아닌 바로 크지 않은 산간군에서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우리 군자체의 힘으로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자고 하였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보니 신심이 생깁니다. 이번에 우리 기업소종업원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는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라고 격정을 터치는 군안의 한 일군, 어찌 그만의 심정이랴.

당의 뜻을 받들어 자기들의 손으로 행복의 보금자리를 보란듯이 안아올리는 나날에 이들모두가 심장으로 확신하고 간직한 번영의 철리이다.

위대한 우리 당정책은 인민의 행복을 주렁지우고 조국의 번영을 꽃피우는 만복의 씨앗일뿐아니라 이 땅의 인민을 이렇게 자력갱생의 투사, 창조의 능수들로 키우는 인간성장의 비옥한 토양인것이다.

진정 발목이 시도록 걷고싶은 땅, 이 가슴에 번쩍 안아 온 세상에 보란듯이 자랑하고싶은 행복의 산수화이다.

위대한 당의 뜻이 꽃피고 우리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고 인민의 락원이다! 우리는 성천땅의 눈부신 모습에 어려오는 이 소중한 철리를 듣는다. 높뛰는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해 일군이 있다

한알의 씨앗이 뿌리내려 알찬 열매를 주렁지우는데도 가꾸어주는 손길이 필요하다. 만복의 씨앗인 우리 당정책을 인민의 행복의 열매로 주렁지우는 원예사,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우리 군당위원장, 눈부신 전변을 자랑하는 성천땅의 어디서나 울리는 이 부름,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행복의 락원을 꾸려나가는 성천군의 미더운 주인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이고 존경이다.

어느덧 9년세월이 되여온다. 임명받은 때가 장마철이였던지라 사방 불어난 물속에 섬처럼 되여버린 군으로 힘들게 들어섰다는 최명수 군당위원장, 그는 지금도 가끔 읍지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12봉마루에 오른다. 모든것이 정겹고 못 잊을 추억을 불러오는 땅이다. 제일먼저 큰 지게를 지고 무너진 제방을 쌓을 돌들을 모아들였던 군경기장주변의 새 동뚝이며 전정가위를 늘 차에 싣고 다니며 제손으로 한그루 또 한그루 가꾼 길가의 나무들이며 밤새워 굴착기의 동음을 울리며 번듯하게 정리한 강하천들이며…

살점처럼 소중하고 고향처럼 정든 이 땅에 그는 진정을 바쳤다. 당이 맡겨준 나라의 200분의 1에 말그대로 온넋과 심장을 깡그리 묻었다.

우리 일군들이 무엇때문에 존재하겠는가. 바로 당정책을 현실로 꽃피우고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당원이 있고 일군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곳 군당일군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우리 당정책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이 어리여있고 우리 당의 이민위천사상이 구현된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번영의 등대이다. 그것이 어떻게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포전담당책임제만 보아도 그렇다. 사실 군안의 대부분 농경지들이 비탈밭으로 되여있고 한 작업반, 한 분조에서도 크고작은 밭들이 멀고 가까이에 분포되여있는 성천군은 포전담당책임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느 지역보다 불리하다. 하지만 이들은 맥을 놓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포전담당책임제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옳바로 실시하여 최대로 은이 나게 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사색을 모았고 지혜를 합치였다.

그 과정에 나온것이 64가지 문답집이다. 거기에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데서 군안의 농민들이 절실히 알고싶어하는 문제들과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어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는 명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례하면 《우리 군에서는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왜 4월말까지 끝내야 하는가》, 《수강냉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양수공, 물관리공, 모판관리공 등 개별임무를 수행하는 농장원들의 경우 포전담당책임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산전산후휴가제를 비롯한 국가적혜택을 받는 농장원들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들이 당정책에 립각하여 명시되여있다. 오늘 이 문답집은 다수확을 지향하는 성천군농민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 불씨로 되고있다.

군안의 인민들에게 큰 덕을 주는 남새온실도 그렇다. 당의 구상에 따라 군에도 번듯한 남새온실을 일떠세웠을 때 일군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온실남새생산을 활성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생산정상화를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나갔다. 남새농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농장원들을 선발하여 남새온실의 주력을 이루도록 하였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군당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었다. 남새온실분야의 지식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도 자주 조직해주었고 호동별 책임관리제도 실속있게 운영하여 생산자들의 의욕을 높여주었다. 바친 땀이 헛되는 법은 없다. 이 온실에서 생산하는 남새는 성천군은 물론 이웃군들에까지 널리 퍼지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맹수가 된다는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당의 뜻과 구상인 당정책을 결사관철하여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한다는것이 아니겠는가.

성천발전소는 최명수 군당위원장이 임명되여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여러가지 원인으로 동음을 멈춘 상태였다. 이것을 안 그는 즉시 현장으로 향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군안의 인민들이 풀죽을 먹으면서 건설한 발전소라는데 그 동음이 멎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도 귀중하지만 보다 귀중한것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당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발이 닳도록 기계공장들을 찾아다니며 발전설비들을 구해오고 전기생산을 정상화할 묘안을 찾아낸 군당책임일군, 그렇게 개건한 발전소에서 지금은 전기가 팡팡 생산되여 군안의 인민들에게 큰 덕을 준다. 그 밝은 불빛아래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울 때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우리 당정책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의 불씨이고 만복의 씨앗이라는 가슴뿌듯한 확신이 아니겠는가.

성천군의 전변은 그래서 귀중하다.

우리 당정책과 일군,

인민의 행복과 당정책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진 일군의 역할,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산화폭으로 새겨주는 성천땅의 전변은 그래서 의미가 깊고 시대를 울리는 진폭이 크다.

일군들이여, 누구나 성천땅의 일군들처럼 한몸 다 바쳐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당의 미더운 전사, 멸사복무의 주인공이 되자.

진심으로!

이것이 성천군당 일군들의 당정책결사관철의 기풍에서 우리가 안아보게 되는 훌륭한 자세이다.

진심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갈수 없다.

진심으로 당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에만 고난을 이기는 방도도 생기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최근년간 성천군이 이룩한 전변가운데서 누구나 제일 놀라고 감동깊어하는것이 강하천정리이다. 강이 성처럼 둘러막았다고 하여 성천이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듯이 성천군은 6개의 시, 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합수되는 불리한 지역이다. 장마철이면 물목이라도 터진듯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이 삽시에 온 군을 물바다속에 잠그군 하였다. 그때문에 입는 농사피해, 토지류실, 산림피해는 얼마나 컸던가. 군을 추켜세우려면 결정적으로 강을 다스려야 하였다. 보통의 결심과 담력으로는 용단을 내릴수 없는 방대한 일이였지만 성천군의 일군들은 기어이 해냈다.

생각해보자. 크고작은 지류만도 170여개가 넘는 군안의 중소하천들을 빠짐없이 다스리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험한 골안들을 메주밟듯 하며 물곬을 째고 높아진 강바닥들을 낮추고 새 동뚝을 만들며 불과 몇해사이에 연 수백km에 달하는 강하천들을 정리하여 수많은 땅을 되찾고 천여정보의 랭습지들을 개량한 성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군안의 주민들은 성천땅의 래일을 위해 그처럼 어려운 일을 결심하고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기어이 완수해낸 군당책임일군을 가리켜 애국자당일군이라고 정을 담아 부른다.

애국자당일군, 얼마나 뜻깊은 호칭인가.

눈앞의 리익에 급급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였다면, 당이 맡겨준 한개 군의 오늘과 래일을 위해 진심으로 자신을 다 바칠 각오가 없었다면 해낼수 없었던 참으로 큰일이다.

당이 나를 믿고 한개 군의 당사업과 인민생활을 맡겨주었는데 이 한몸 다 바쳐 그 믿음에 보답할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이것이 자나깨나 온 성천땅을 품어안고 울고웃으며 만난을 이겨온 이 미더운 당일군의 진정이고 백옥같은 량심이다.

그런 일군이기에 그는 당에서 교육중시의 열풍을 일으킬것을 호소하였을 때에도 읍거리의 큰 학교가 아니라 바로 군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의 마지막분교부터 개건하는것으로 시작을 뗐다.

진심에는 어떤 설명도 수식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천백마디 말보다 더 크게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위력한 선동이다.

성천군인민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해 군당위원회가 작전하고 계획하는 사업들에 대해 한사람같이 지지하며 발벗고나선다. 거기에는 군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진심으로 자신을 바치는 군당위원회 일군들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담겨져있다.

산간군인 성천군에는 험한 산골들에 위치한 농장들과 외진 포전들이 많다. 군당책임일군은 그런 곳들에는 걸어서 간다. 어떤 날에는 점심밥을 허리춤에 두르고 이 농장에서 저 농장에로 수십리 산발을 타고넘으며 농장원들을 찾아가고 포전들을 돌아보는 군당책임일군, 그러다나니 군에는 그가 모르는 포전이 없고 밟아보지 않은 산발이 없다. 어느 깊은 산골의 외진 포전이라 해도 그것이 어느 작업반, 누구의 담당포전이라는것을 환히 알고있는 군당위원장이다.

언제인가 일군들이 군의 제일 한끝에 자리잡고있는 산골분교를 찾은적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불과 몇명밖에 안되는 분교의 아이들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를 보고 군당위원장큰아버지가 왔다고 반기며 저저마다 달려와 안긴것이다.

오, 너희들이구나라고 하며 한 아이, 한 아이 이름을 부르고 머리를 쓸어주는 그를 보며 모두가 머리를 숙였다고 한다. 이런 일군이 있는 곳에 어찌 외지고 뒤떨어진 곳이 있을수 있겠는가.

군당책임일군부터가 앞채를 메고 발이 닳도록 뛰니 아래일군들이 그 본을 따르지 않을수 없다. 어느 전투장, 어느 단위들에서나 작업복차림으로 대중과 어울린 군당위원회 일군들을 볼수 있는것이 성천군의 또 하나의 좋은 풍경이다. 강하천정리전투장에 가보아도 굴착기운전공의 옆자리에는 그것을 담당한 군당일군이 낮이나 밤이나 함께 있고 눈부신 속도로 일떠서는 읍지구의 살림집건설전투장에는 검사개소들만 돌아보자고 하여도 매일 연 40리가 되는 구간을 걸어야 한다는 방대한 건설현장을 땀흘리며 메주밟듯 하는 군당일군들의 모습이 있다.

군안의 일군들모두가 이렇게 만짐을 지고 신발창이 닳도록 뛰니 당정책관철에서 왜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성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맑고 깨끗한 당적량심에 대해 알게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성천군 읍지구의 도로들은 류달리 깨끗하다. 바로 군당일군가족소대가 맡아 관리하는 도로구간이다. 소대장은 군당위원장의 안해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을 하루같이 땀에 젖고 눈비에 젖으며 길을 쓰는 군당일군들의 안해들을 볼 때마다 군안의 인민들의 생각은 깊어진다. 길을 봐도, 속을 봐도 애오라지 당의 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열망으로 마음 불태우는 일군들, 이런 일군들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이 없고 이룩하지 못할 기적이 없다는것이 성천땅인민들의 뜨거운 민심이다.

실력으로 당을 받들자, 우리는 성천땅의 전변의 화폭들에서 울려오는 이 우렁찬 토로를 듣는다.

우리 당정책이 만복의 씨앗이라면 그것을 알찬 열매로 무르익히는 밑거름은 일군의 실력이다.

만일 당정책관철의 앞채를 메야 할 일군들이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업에서 주견을 세울수 없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내밀수 없으며 이러저러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좌왕우왕하게 된다.

절대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지도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성천군일군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성천군인민들은 군당위원장을 두고 이름처럼 명수이다, 모르는것이 없고 막히는것이 없는 일군이라고 한다. 인민의 평가처럼 정확한것은 없다.

군당위원장의 칠판이야기가 있다. 과학농법으로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승용차에 칠판을 싣고 다니며 자신이 직접 선진농법들의 원리와 우월성을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준다는 군당위원장,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 백을 알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스스로 선생이 되자니 얼마나 많은 농업지식을 터득하고 탐독하였겠는가.

결코 타고난 실력이 아니다. 당정책관철을 위해 피타게 쌓은 지식이고 정열적으로 파고든 다방면적인 분야들이다.

우리는 지금 읍농장의 한 포전머리에 서있다. 이랑마다 꽂혀진 표말들과 류다른 방법으로 재배되는 농작물들이 마치도 농업연구소의 시험포전을 방불케 한다. 이 포전의 주인은 놀랍게도 군당위원장이다.

군당위원장의 시험포전!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름인가. 여기에서 먼저 군당위원장이 시험재배를 해본 다수확품종의 종자들과 선진영농방법들이 군안의 농장들에로 퍼져간다고 하니 결국 군의 시험포전인셈이다. 놀라운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 관리위원장들과 리당위원장들에게도 다 이런 시험포전이 있다는것이다. 군안의 일군들 누구나 농업생산을 위해 항상 고심하고 탐구하며 애를 쓰니 왜 농사가 잘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것이 있다. 오늘날 일군들의 실력문제는 향학열, 지식열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바로 당적량심에 관한 문제라는것이다.

시대와 혁명이 그 어느때보다 우리 일군들의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오늘 피타게 배우지 않고 이악하게 지식의 탑을 쌓지 않는 일군은 본질에 있어서 관료주의자, 요령주의자, 보신주의자이다. 그런 일군은 대오의 기수는커녕 대중의 창발성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걸림돌, 제동기로밖에 될수 없다.

전당의 일군들이여, 눈부시게 비약하는 만리마시대의 혁명의 기수답게 실력으로 당을 받들고 실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실력가형의 일군이 되자.

수령복, 인민복을 노래하는 이 땅에서 시대와 혁명이 바라는것은 일군복이다. 우리 일군들이 한몸 다 바쳐 인민들에게 덕을 주고 조국에 보탬을 주며 전진하는 혁명에 활력을 더해주는 진짜배기 혁명의 전위, 미더운 대오의 기수가 될 때에만 사회주의 푸른 하늘아래 행복의 화원들이 더욱더 만발하고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우렁차게 울려퍼진다.

참으로 떠나고싶지 않은 땅, 끝없이 거닐고싶은 유정한 고장이다.

지금은 여름계절, 아직 풍요한 가을은 저 앞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성천땅의 풍요한 가을이 보이는것 같다.

왜냐하면 자연의 계절에는 열매익는 계절이 한철이여도 위대한 당의 뜻이 현실로 꽃피고 그것을 심장으로 받드는 훌륭한 일군들이 있는 곳에는 인민의 행복이 사철 무르익기때문이다.

행복의 산수화 성천땅이 바로 그것을 뜨겁게 속삭이고있었다.

본사기자 방성화

대학생가방생산 활발

평양가방공장에서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하게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에서 형태가 다양한 13종의 남녀대학생가방생산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중시하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올해 첫달부터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4월까지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학생가방생산을 결속하고 5월부터 대학생가방생산을 시작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에 앞서 여러 대학들에 나가 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사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기술준비를 선행시켜나갔다.

소학교학생가방을 생산할 때보다 20여개의 작업공정을 더 거쳐야 하는 조건에서 공장일군들은 생산조직을 보다 빈틈없이 짜고들어 모든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하였다.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자식들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어머니다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명심하고 종업원들은 맡은 공정마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가방생산에 심혈을 쏟아붓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준비직장 로동자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위력으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가방 하나에 드는 재단품만도 수십개나 되는 어려운 작업을 맡은 재단작업반 종업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재단품생산을 보름이상 앞세워나가고있다.

인쇄작업반 종업원들도 가방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자면 인쇄작업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교대가 따로 없는 생산돌격전을 벌려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재봉1, 2직장 재봉공들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이후 이악한 노력으로 평균기능급수를 부쩍 올린 재봉공들은 개인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며 집단적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지금 대학생가방을 생산하는족족 해당 부문과 련계하여 각 구역의 상업봉사단위들에 보내주고있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학생가방생산에서 로력적위훈을 창조할 일념을 안고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전화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

그들은 새 조선의 주인들이였다

6월 25일, 해마다 이날이 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결사수호의 신념과 의지를 만장약하며 추억의 노를 저어간다.

1950년 6월의 마지막일요일에도 우리 인민은 행복에 겨워 더 좋은 래일을 위해 새 조국건설의 마치소리 우렁차게 울려갈 꿈을 펼치고있었다.

해방전에는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새세상에서 나라의 주인, 공장과 땅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기쁨과 열의는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인 6월 24일부 《로동신문》은 력사적인 로동법령발포 4돐에 즈음한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는 진정한 인민정권이 수립되였으며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로동계급의 세기적숙망이였던 선진적인 로동법령이 실시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로동법령이 실시된 후 4년만에 북반부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은 공화국정부의 일상적인 배려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되였으며 또 부단히 향상되고있다. …로동자들의 수입은 기존임금보다도 평균 63.5%나 증가되였다. 임금이외에도 각자의 로력의 량과 질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각종 상금, 상품, 가급금을 받았으며 1949년말현재로 1771 42호의 국가주택을 리용하고있으며…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 …

국가의 리익과 자기의 리익이 혈연적으로 결부되여있는것을 깊이 인식하고있는 전체 로동자들은 자각적으로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애국적증산경쟁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1946년에 비하여 1949년에는 로동생산성을 283.4%로 제고시켰으며 공업생산고를 실로 377%로 증가시켰다.》

3면에 실린 보도기사 《해마다 확장되는 북반부 각 정휴양소시설》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해금강, 삼방, 주을(당시) 등 공화국북반부 각지의 여러 명승지에 꾸려진 정양소와 휴양소들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면서 석왕사, 해금강, 묘향산 등 16개소에 근로자들을 위한 정휴양소가 개설되여 수만명의 수용능력을 갖춘데 대하여 전하였다.

참말로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근로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수천년을 헤아리는 우리 조국력사에서 처음 보는 참다운 인민의 세상이였다.

하지만 새 생활이 약동하던 평화로운 우리 조국강토에, 건국열기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가증스러운 침략의 무리들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공화국정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략의 무리들은 공화국북반부지역으로 1~2㎞까지 미친듯이 침범해 들어왔다.

적들의 무력침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그날 즉시 내각비상회의를 여시고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상태, 전시동원령을 선포하시는 한편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및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작전적방침에 따라 인민군대와 경비대는 치렬한 방어전을 벌려 적들의 대규모적인 불의의 침공을 제때에 좌절시켰으며 즉시에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전전선에 걸쳐 불의에 달려든 적에 대해 지체없이 즉시에 그리고 국부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위력하고도 빈틈없는 결정적타격을 가하면서 반공격에로의 이행,

이것은 세계전쟁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였다.

더욱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원쑤격멸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의 서슬푸른 영웅적기상과 투철한 의지였다.

반만년력사에 처음 보는 인민의 세상을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드는 침략자들을 우리 어찌 용서할소냐.

이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동원하며 인민군대를 계속 증원, 보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이 주인이 된 인민민주주의제도와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사수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바쳐 싸우기 위하여 마치와 낫을 총으로 바꾸어쥐고 전선으로 앞을 다투어 탄원하였다.

각지 공장, 기업소, 농촌, 어촌, 학교, 병원, 가두 등 그 어디에서나 조국보위의 신성한 의무를 자각한 로동당원들을 선두로 한 청년학생들은 종업원회의, 민청열성자회의, 민청초급단체총회 등 여러가지 모임을 열고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나갈것을 열광적으로 탄원하였다.

1950년 6월 26일 평양철도공장, 사동련탄공장, 평양전직공장을 비롯한 각지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종업원대회를 열고 전시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언제든지 전선으로 출동할것을 한결같이 결의하였다. 평양, 송림, 해주, 신의주, 남포, 흥남, 원산, 라남, 함흥을 비롯한 공장지구들에서 로동자들은 로동자련대를 조직편성하여 전선으로 출동하였다.

해방후 땅의 주인으로 된 농촌청년들은 수령님께서 주신 땅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할 결의밑에 련일 열성자대회, 민청초급단체총회 등을 열고 자기들의 애국적열의와 멸적의 투지를 시위하면서 전선으로 나갈것을 탄원하였다. 평안남도 순천군(당시)에서는 군내 전체 청년의 80%이상이, 평원군에서는 79%가 전선으로 나갈것을 탄원하였다.

공화국북반부의 각 대학, 전문학교,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새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전선출동을 열렬히 탄원하였다. 6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된 궐기모임에서는 2800여명의 남녀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보내줄것을 탄원하였으며 이에 뒤이어 전국각지의 대학, 전문학교, 고급중학교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거의 전부가 전선으로 나갈것을 탄원하여나섰다.

과학, 교육, 예술부문 일군들도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선출동을 열렬히 탄원하여나섰다. 그리하여 1950년 7월 11일 당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무려 74만여명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나갈것을 탄원하였다.

영웅적인민군대의 승리적인 진격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선출동을 탄원하는 공화국북반부의 남녀청년학생들의 수는 더욱 증가되여 1950년 8월 15일 당시에는 84만 9000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남진의 길에 떨쳐나선 그들은 새 조선의 주인들이였다.

해방전 식민지노예의 멍에속에서 신음하던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뼈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 누구나 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정의로운 싸움에서 유명무명의 영웅으로 자라났다.

본사기자 김치곤

싸우는 후방의 목소리—전선을 돕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선원호사업은 전선에서 원쑤와 싸우는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위대한 승리에는 후방인민들의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원군정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불길속의 녀성보잡이들

준엄한 전시환경에서 농사를 짓는다는것은 전투 못지않은 어려운 일이였다.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책동으로 농업생산에서는 걸리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농기구와 부림소도 얼마 안되고 종곡이 모자라는것도 문제였지만 더우기 어려운것은 보탐을 잡을 남정로력이 없는것이였다.

이러한 때 안악군의 한 녀성이 보잡이로 나섰다. 해방전 대대로 지주집머슴을 살던 유만옥녀성이였다. 다시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기 위해 결사의 각오로 떨쳐나선 그는 마을에 품앗이반을 꾸고 앞장서 보잡이가 되였다.

어려리벌의 첫 녀성보잡이의 뒤를 따라 마을녀인들이 보탐을 굳게 잡고 자기들이 맡은 《전선》을 피로써 지켰다.

가증스러운 적기들의 폭격이 씨앗을 묻은 땅을 사정없이 파헤쳤고 귀뿌리를 스치는 기총탄이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였지만 후방의 녀인들은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복수의 피를 끓이며 소잔등과 몸에 위장을 하고 달밤에도 논과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당시)에서만도 주체40(1951)년 한해동안에 무려 1만 수천명의 녀성보잡이들이 나왔다.

불길속에서도 굴함없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용감히 싸운 녀성보잡이들, 그들의 공적은 조국해방전쟁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전선원호의 기적소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개천역 역장이였던 최치정동무와 수송전사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며 하루에도 수십번 렬차를 맞고 떠나보내였다.

주체40(1951)년 3월 개천역 수송전사들앞에는 더 많은 군수물자를 수송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그러한 때에 역상공에 갑자기 적폭격기편대가 날아들었다.

적들의 목표는 역구내에 서있는 군수렬차였다. 무차별적인 폭격이 시작되였다. 역구내는 삽시에 포연속에 잠기였다. 폭약이 실린 화차에도 불이 달렸다. 위급한 그 시각 최치정동무는 한달음에 달려가 련결기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이때 수송전사들이 달려와 불붙는 화차를 떼여냈다.

최치정동무는 화차우에 서슴없이 뛰여올라 불붙는 폭약상자를 들어냈다. 수송전사들도 그의 뒤를 따라섰다.

드디여 마지막상자를 안은 최치정동무가 화차에서 뛰여내려 안전한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최치정동무가 남긴 마지막모습이였다. 그는 이렇게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날 여러명의 수송전사들이 군수렬차를 구원하고 고귀한 생을 마치였다.

그들의 위훈은 두줄기 궤도우에 새겨져 오늘도 수송전사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전선지구 인민들의 위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남강마을인민들을 비롯한 전선지구 인민들의 투쟁위훈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들은 포연탄우를 뚫고 월비산과 351고지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에게 포탄과 식량을 운반하였다.

전선에서 인민군대의 포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한밤중이라도 무거운 포탄상자를 이고 고지에로 올랐다.

싸우는 고지와 남강마을을 련결하는 유일한 수송로인 남강다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도 남강마을녀성들은 열렬한 애국심을 높이 발휘하였다.

온정령으로부터 월비산에로의 100여리 우회도로건설이 진행될 때에도 그들은 인민군대와 함께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뿐만아니라 상감령지구 녀인들도 담가대, 전선위문대, 식사반 등에 참가하여 인민군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함으로써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후방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헌신적인 원호에 의하여 전선에서의 승리가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오은별

공화국영웅전을 펼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이 낳은 새 세대 영웅들인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은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훌륭한 본보기로 됩니다.》

주체47(1958)년에 발행된 도서 《공화국영웅전》의 서문에는 이렇게 씌어져있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배출된 공화국영웅들에게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생생한 모범을 보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생활상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으로 쟁취한 사회주의적전취물들,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였으며 자기들의 모든 힘과 지혜와 생명까지 바쳐 그것을 영웅적으로 고수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은 전쟁개시 첫날부터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주체39(1950)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발표하여 공화국영웅칭호를 제정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보름만인 7월 15일에는 인민군군관, 하사관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첫 정령이 발표되였다.

김군옥, 김기옥, 김두섭, 김봉호, 김일섭, 김진걸, 김홍엽, 리문순, 리완근, 리훈, 전기련, 정학봉.

바로 이 12명의 군인들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배출된 첫 공화국영웅들이였다. 이들은 해방전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면서 조국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절감한 사람들이였다.

근 10배에 달하는 적들과의 첫 공중전에서 기묘한 비행술로 여러대의 적기들을 격추, 격상시킨 김기옥영웅의 해방전생활은 비참하였다.

함경북도의 어느 자그마한 산촌에서 화전민의 자식으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궂은일에 잔뼈를 굳히였다.

그러다가 왜놈들의 징용에 걸려 일본에까지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그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8.15해방과 함께 그리운 조국땅으로 돌아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된 그는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될 공화국정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비행사가 되여 비행술을 꾸준히 련마하였다.

능숙하고 과감한 작전으로 적유생력량을 소탕하는데 기여한 정학봉영웅도 해방전 지주집팔머슴으로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온 사람이였다.

나라없는 백성의 슬픔을 안고 이역의 거치른 땅에서 헤매이다가 해방된 조국땅에서 어엿한 나라의 주인이 된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이 꽉 차있었다.

하기에 그는 대전해방전투를 앞두고 전우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 이 나라에 태여난 아들로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달려든 원쑤놈들과 무자비하게 싸우는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이 사랑과 배려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충성다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이런 순결하고 열렬한 충정이 어제날 지지리도 못살고 천대받던 화전민과 팔머슴들로 하여금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게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자.

이런 신념을 안고 굴함없이 싸웠기에 이 나라의 평범한 아들딸들은 강대한 적을 무찌른 영웅들로 자라날수 있었음을 공화국영웅전은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었다.

본사기자 리건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전위투사가 되여야 하며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야 합니다.》

얼마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던 우리는 피젖은 당원증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당원증을 바라볼수록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당원증을 심장에 지닌 때로부터 불과 3일후 용사는 당원증을 피로 적시고 전사하였다.

당원증을 수여받고 3일,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짧은 3일에서 우리는 한 당원이 걸어온 인생길을 더듬어보았다.

세상에 고고성을 울리며 태여난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비껴든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일제의 채찍밑에 고역살이를 하던 비참한 부모의 모습이였고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고향산천이였다.

나라없던 그 세월 바람세찬 들판에 떨어진 하나의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그의 인생은 해방의 서광과 더불어 드디여 사랑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였다.

꿈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했던 인간다운 생활의 기쁨과 행복, 그 모든것이 그토록 소중했기에 그는 손에 총을 잡고 원쑤격멸의 길에 서슴없이 떨쳐나섰다.

불타는 고지의 전호가에서 당원증을 수여받던 날 그의 가슴은 얼마나 부풀어올랐으랴.

그렇게도 지니고싶었던 당원의 영예를 지닌 그날 전사는 떠나온 고향의 부모를 그려보았을것이다.

포연이 자욱한 고지의 전호에서 수류탄을 쌌던 종이우에 한자두자 글을 적어가던 화선용사의 모습이 화폭마냥 눈에 어려왔다.

아마도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으리라.

당원증을 가슴에 품고 전승의 개가높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나라없던 그 세월 지지리도 억압받고 천대받던 아들을 조선로동당원으로 키워준 위대한 그 품을 지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겠다고.

전사는 그 맹세를 피로써 지켰다.

어찌 그만이랴.

수많은 조선로동당원들이 당원의 영예를 지켜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싸웠다.

불타는 고지에서 최후의 결사전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울 굳은 결의를 담은 맹세문을 쓴 사람들도 로동당원들이였고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진격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간 사람도 다름아닌 로동당원들이였다.

피젖은 당원증, 그것은 조국을 지켜 한목숨바친 한 전사의 위훈만을 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후대들앞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은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빛내여야 하는가를 엄숙히 가르치고있었다.

순간을 살아도 오직 당을 위해 살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투사가 되고 돌격용사가 되는 당원의 삶은 비록 짧아도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한다는것을 피젖은 당원증이 말해주고있었다.

본사기자 신철

수필

전화의 나날 영웅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을 심장깊이 새겨간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첫 답사길을 개척하신 62돐을 맞으며 전국청년학생들의 답사행군대가 10일부터 24일까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혜산을 출발하여 력사의 땅 보천보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의 포연서린 군복차림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지략으로 조국땅에 승리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여 일제의 총칼밑에서 신음하던 인민들에게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새겨안으며 그들은 보천보전투지휘처와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우편국 등을 돌아보았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보서리샘골터와 중흥동관을 지나 12일 삼지연군에 도착하였다.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서 그들은 태양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떨쳐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은 그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삼지연혁명전적지가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삼지연못가와 봉화탑, 부주제조각군상 등을 돌아보았다.

15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우리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나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신사동혁명전적지, 무포숙영지 등을 답사하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심장마다에 쪼아박은 답사행군대원들은 신무성, 무두봉을 지나 20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그들은 백두산정에서 맹세모임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다시금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리명수혁명사적지에서 백두의 혁명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에 새기였으며 항일대전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청봉, 건창숙영지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답사행군기간 청년학생들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삼지연군꾸리기건설에서 눈부신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그들과 일도 함께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대지와 잇닿은 뜨거운 마음들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확장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청년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되여있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입니다.》

김덕광업련합기업소 세멘트직장 최운연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우리 로동계급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확장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공사장에 보내주었다.

평양시청소년과외교양지도처 산하단위 로동자 김숙동무는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확장공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면서 많은 자재와 후방물자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공사를 다그치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어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후방부 공급원 오경희, 조선체육대학 체력증진회사 부원 최순화동무들도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을 훌륭히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김일혁, 리진성,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료리기술대학 전혜옥, 평북종합대학 의학대학 제1의학부 현미령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대학생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년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판으로 명명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확장공사지원사업에 자기들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학생소년들속에서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확장공사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발휘되였다.

중구역 동성초급중학교 학생 송경덕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길이 전하는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헌신의 땀방울을 바쳐가고있는 형님, 누나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수백점의 자재들을 공사장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또한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2음악학원 초급반 김연주, 림수연, 체육성 청소년체육학교 고급반 조수림, 평양제1중학교 초급반 박영경, 중구역 련광고급중학교 장리광, 창덕학교 김설송도 온 가정의 마음을 담아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공사장에 보내주었다.

이밖에도 중구역 련화소학교 김경령, 서성구역 상신소학교 로위권, 운산군 금산소학교 김진원, 라선시 선봉지구 상현소학교 김진성을 비롯한 수많은 소학교학생들도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부모들의 도움으로 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와 물자를 마련하여 공사장에 보내주어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이런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떠받들려 오늘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백두청춘들의 영웅적위훈을 길이 전하는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서 청년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윤명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태권도강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

오늘의 위훈속에 래일의 금메달이 빛난다

평양시태권도선수단에서

전국의 태권도선수단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의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 종업원들이 공화국창건 70돐을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끊임없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체육종목인 태권도와 씨름을 널리 장려하여 온 나라를 태권도화하고 우리 태권도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며 태권도기술과 전통적인 씨름기술수법들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이곳 선수단에서는 국제경기금메달수상자들의 경험발표회가 의의있게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5월에 진행된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들을 쟁취하여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누리에 떨친 선수단의 박미향, 김준성, 엄현희동무들이였다.

지난 시기 여러차례의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들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들에 자만함이 없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여 이번에도 여러 경기들에서 단연 우승하고 6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녀자개인기술상을 수여받은 박미향선수,

국제경기경험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속에서도 필승의 신심드높이 평시에 이악하게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개인맞서기경기들에서 단연 우승한 김준성, 엄현희선수들,

이들의 토론은 선수단선수들속에서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류홍철 책임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수들이 오늘의 훈련장을 당의 사상관철전, 조국수호의 격전장으로 여기고 사상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때 누구나가 세계를 압도하는 새 기술의 소유자, 래일의 금메달을 자랑차게 안아올리는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출연자들의 토론은 모두의 가슴을 끓게 하였습니다.

보람찬 청춘시절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기어이 조국의 명예를 온 누리에 더욱 긍지높이 빛내이겠다는 결사의 각오와 새로운 신심을 가다듬게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국내경기에서 아쉽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선수들이 더 이악하게 훈련에 달라붙었다.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어느 하루도 훈련장을 떠나지 않았다.

강도높은 훈련과정에 넘기기 어려운 고비들과 맞다들릴 때마다 훈련장에 메아리치는 우렁찬 웨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더 높은 체육경기성과로 받들어나가자!》

무비의 힘과 용기가 샘솟게 하는 신념의 구호에 누구나가 심장으로 화답하며 혼련과제수행을 위한 총돌격의 발구름소리를 높이 울리군한다.

피끓는 청춘의 심장을 꽉 채운 이 고결한 마음을 훈련장들에 게시된 사회주의경쟁도표에 앞을 다투어 치솟는 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경험발표회의 실효는 이렇게 컸다.

단장 김효성동무가 지난 시기와는 달리 감독, 선수들뿐아니라 후방보장부문 종업원들까지 다 참가하게 한 이런 경험발표회를 조직하게 된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자기들의 어깨우에 민족의 존엄이 지워져있다는 투철한 사상적각오가 대중의 심장속에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고 태권도기술발전의 전초선에 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줌으로써 교수훈련뿐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영양공급사업을 비롯한 선수단의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안아오자는것이였다.

선수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신력발동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대중의 지혜와 힘과 열정을 끊임없이 분출시켜 높이 세운 올해 전투목표를 하나하나 점령해나가고있다.

단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따라세우고 종업원대중의 힘을 적극 발동하여 사상교양거점을 더욱 훌륭히 꾸리고 선수들의 훈련조건,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집단의 기세를 고조시키고 있다.

선수단의 면모가 나날이 일신될수록 집단의 믿음을 더욱 자각하고 교수훈련에 박차를 가해가는 감독, 선수들이다.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선수들이 달성해야 할 육체기술적, 전술적목표들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두가지 이상의 특기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교수훈련지도방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적극 합쳐가는 이곳 감독들.

그 과정에 지난 시기의 경기들에 대한 분석을 치밀하게 진행한데 기초하여 선수들이 맞서기경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치있는 기술수법들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편 선수단일군들의 깊은 판심속에 연구사들이 정보기술수단들을 튼튼히 갖추고 가치있는 프로그람들을 적극 도입하며 모든 감독들이 한가지 이상의 새로운 훈련기재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탐구의 열풍, 실력전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처녀시절 국제경기무대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던 그 기백으로 선수후비육성에 불같은 정열을 바쳐가는 우경옥동무.

그런가하면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갓 배치된 리항성동무도 태권도소조운영을 실속있게 하고있는 락랑구역 충성고급중학교에 나가 효해사업을 심도있게 하는 과정에 전망성있는 선수후비들을 선발하는 등 앞날의 태권도강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걸음을 신심있게 내짚었다.

이렇듯 온 집단이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쳐가는 불같은 열정속에는 감독, 선수들과 종업원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선수단일군들의 진정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직은 부족한것도 적지 않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심은 확고합니다. 수도의 태권도선수단답게 우리의 힘과 지혜로 태권도기술발전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 내 조국의 영예를 승리의 금메달로 더욱 높이 떨쳐가는 선구자집단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하루하루를 순결한 애국충정으로 수놓아가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가는 이들의 힘찬 투쟁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빛내이고 태권도모국의 필승의 기상을 자랑차게 과시하는 래일의 금메달, 새로운 승리의 금메달로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물질적토대축성에 큰 힘을 넣어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에서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에서는 올해에 진행된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년간에 여러명의 국가대표선수들을 배출하였다.

특히 선수단의 조국현선수가 얼마전에 진행된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러개의 금, 은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우리 나라 팀이 나라별 종합순위에서 1위를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성과속에는 선수들의 훈련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열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이곳 책임일군들이 선수단의 물질적토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기 시작한것은 몇해전이였다.

당시 선수단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이로부터 선수들이 훈련과 생활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선수단의 일군들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조건보장을 따라세울 때만이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실지로 교수훈련조건보장과 후방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기술발전성과도 기대할수 없었다.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우수한 태권도선수들을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이렇게 결심한 책임일군들은 해당 일군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면서 선수들의 생활조건보장과 후방공급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덩지가 큰 2층으로 된 건물을 건설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선수단자체의 힘으로 높이 세운 목표를 실현한다는것은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많은 자재가 요구되였고 건설을 맡아할 로력보장도 문제였다.

하지만 선수단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건설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앞채를 메고 부족되는 자재와 로력을 해결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면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하나하나 이악하게 실천해나가는 책임일군들의 뒤를 따라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떨쳐나 지혜와 힘과 열정을 하나로 합쳤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선수단은 나날이 변모되여갔다.

선수들의 생활에 이바지할수 있게 식당, 한증탕, 리발실 등과 옥상에는 태양열온실과 버섯재배장까지 갖춘 건물이 훌륭하게 일떠섰다.

이 나날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결심품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이 더욱 굳게 자리잡게 되였다.

선수단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선수들의 휴계실과 훈련장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다그치였다. 하여 올해에 훈련장을 더욱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교수훈련조건과 후방사업개선은 경기성과로 이어졌다.

선수단에서는 지난해에 진행된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와 올해에 진행된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쟁취하였으며 여러명의 국가대표선수들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의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칠 열의에 넘쳐 새로운 목표를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주령봉

교수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자강도태권도선수단에서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자강도태권도선수단은 전국적인 태권도경기에서나 국가대표선수를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었다.

이 시기 선수단일군으로 사업하게 된 박철만동무는 그 원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았다. 원인분석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그는 해결방도를 교수훈련의 과학화사업에서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체육과학에 기초하여 교수훈련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선수들을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준비시킬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선수단의 적지 않은 감독들이 지난 시기의 경험에 치우쳐 교수훈련지도를 해오고있었다.

(태권도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이룩하자면 교수훈련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하여 이곳 일군들은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선 훈련계획을 갱신하도록 감독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였다.

선수단에서는 선수들의 육체기술지표측검을 진행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감독들이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년간 훈련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감독들은 매일 연구사들과의 협동작전을 강화하면서 선수들의 훈련정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록화장면을 보면서 총화사업을 엄격히 진행하였다.

한편 선수단에서는 선수들의 체질적특성 등에 맞는 맞서기경기전술을 확립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경기동영상자료를 놓고 자기 팀 선수들과 다른 팀 선수들의 기술상태를 과학적으로 심도있게 대비분석하여 좋은 점을 살리고 부족점을 극복해나가는 사업도 적극 내밀었다.

이 나날에 선수들의 육체기술적능력은 몰라보게 향상되게 되였고 팀의 특성에 맞게 경기전술체계도 개선될수 있었다.

하기에 이곳 선수단선수들은 최근년간 여러 국제국내경기들에서 영예의 금메달들을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자강도태권도선수단 일군들과 감독들, 선수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더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창조의 열쇠를 찾는 곳

해주기초식품공장에서

해주기초식품공장은 생산정상화에서도 모범이지만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서도 앞선 단위로 되고있다.

생산이 잘되는 비결에 대해 이곳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쥔데 있으며 공장의 기술발전은 과학기술보급실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하는 단위로서 자랑도 많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에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시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에게 보여주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공장일군들은 잘 꾸려놓은데만 만족하지 않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과학기술보급실의 벽들에 게시된 운영계획과 새 기술소개판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기술준비실 실장 김명선동무는 이곳에 많은 종업원들이 찾아오고있는데 열성독자들이 바로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장에는 적지 않은 기술자, 기능공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식료공업과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자료들을 탐구하여 기술혁신사업에서 한몫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주목되는것은 규모가 크지 않은 이 공장의 기술혁신방향이 생산공정의 무인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로 지향되고 있는것이였다.

실지 원료전처리공정에 로보트를 받아들인 이 공장의 과학기술수준이 결코 큰 공장들에 못지 않다.

이 로보트를 가지고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에도 참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압출변성법에 의한 장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장의 질을 높이고 생산정상화에도 이바지하고있다는 실장의 이야기는 공장일군들이 과학기술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하였다.

새 기술보급사업은 결코 과학기술보급실에만 머물러있지 않았다.

문화회관에 종업원들이 모이는 계기에도 과학기술과 관련한 다매체편집물 등을 보여주어 그들모두를 기술혁신창조의 담당자로, 지식형근로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이곳 일군들의 노력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였다.

과학기술보급실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해 지금 공장에서는 개건사업도 벌려놓았다. 앞으로 필요한 설비들을 더 갖추어놓고 과학기술보급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려는것이 이곳 일군들의 결심이였다.

된장작업반, 발효간장작업반 등 작업반들사이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진행되는 속에서 탐구열풍도 더욱 고조되고있다.

혁신의 불꽃은 일터에서, 창조의 열쇠는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이것이 오늘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자력자강으로 생산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공장의 모습이였다.

본사기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상수도망확장공사 결속

혜산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연흐름식으로 된 상수도망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결과 능력은 종전보다 2배로 확장되고 침전지의 환경위생조건이 개선됨으로써 혜산시인민들은 수질이 더 좋은 물을 마실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먹는물을 제대로 공급하자면 그 생산능력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충분히 조성하고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수리정비하여야 합니다.》

량강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해당 부문 일군들과 혜산시일군들은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설계를 앞세우고 두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내밀면서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건설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였다.

혜산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들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침전지건설에서 큰 몫을 맡은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암반을 함마와 정대로 까내면서 맡겨진 기초굴착공사를 남먼저 끝내였다. 그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여 맡은 구조물공사를 짧은 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마무리하였다.

특히 혜산시상하수도난방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시공을 기술적요구대로 하면서 합리적인 작업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를 질적으로 내밀었다.

도급기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결사관철의 의지를 안고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였다.

도광업련합기업소에서는 교대가 따로 없는 맹렬한 돌격전을 벌려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도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과 청년들은 작업구간에 물이 차올라 힘겨운 전투를 벌려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저없이 공사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 자신만만한 투지와 기백에 넘쳐 본때있게 일판을 벌렸다.

도체신관리국에서는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암거, 배수로를 비롯한 공사과제들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혁신의 불길은 통나무보장을 맡은 도림업관리국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시안의 녀맹원들도 애국의 마음안고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공사를 지원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의밑에 공사는 불과 50여일만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특파기자 전철주

혁명적대진군의 앞장에 설 열의에 넘쳐

청진강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청진강재공장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단위이다. 그러나 공장이 함경북도의 경제발전과 건설사업에서 차지하는 몫은 결코 작지 않다.

어랑천발전소와 청진극장,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도내의 크고작은 건설장마다 이 공장의 철강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나 없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청진강재공장 유도로직장의 용해1작업반과 용해3작업반은 직장에서 두번째 자리라고 하면 섭섭해할 정도로 승벽심이 남다른 경쟁단위들이다.

어랑천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철강재생산으로 들끓던 지난 4월 어느날 용해3작업반장 주은철동무에게 두사람이 찾아왔다. 용해공들인 김금철, 배원철동무들이였다.

교대당 쇠물을 한차지라도 더 뽑기 위한 방도를 더놓는 자기들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작업반장에게 배원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 교대부터가 한시간을 더 앞당기자고 모두들 옥옥합니다.》

이렇게 되여 유도로직장 용해3작업반에서는 파철선별에 드는 시간을 훨씬 앞당김으로써 이전에는 교대당 2~3차지가 보통이던 쇠물생산량을 4차지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했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용해3작업반원들의 일욕심에 어찌 용해1작업반의 전투원들이 뒤질수 있으랴.

유도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4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돌진해나가던 지난 5월초였다.

4월에는 아쉽게도 용해3작업반에 앞자리를 양보했던 용해1작업반에서는 하루 쇠물생산량을 1.5배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도를 용해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서 찾고 오랜 용해공들이 신입용해공들을 한명씩 맡도록 했다.

그리하여 이 작업반에서는 5월 중순에 들어와 쇠물 한차지당 생산속도를 2시간으로부터 1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5월 쇠물생산전투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영예를 떨치였다.

1t의 쇠물이라도 더 뽑아 철강재생산에 이바지하려는 유도로직장 전투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유도자를 새로 제작함으로써 로의 생산성을 높이고 로보수기일을 훨씬 단축한 성과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유도로직장뿐이 아니다. 압연직장의 전투원들도 유도로직장의 용해공들에게 뒤질세라 압연강재생산의 하루하루를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지난 4월 어느날 기운차게 돌아가던 전동기가 뜻밖의 일로 동음을 멈춘 정황속에서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전동기수리전투를 짧은 시간에 끝낸 김순학, 최경일동무를 비롯한 압연직장의 수리작업반원들이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교대당 5t의 압연강재생산량을 단번에 10여t으로 끌어올린 유학범작업반장을 비롯한 압연2작업반의 압연공들…

철강재생산의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불타는 지향을 안고 여러가지 부속품가공을 위해 교대가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는 작업반장 유일수동무를 비롯한 공무작업반 전투원들의 투쟁기풍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것인가.

오늘 청진강재공장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생산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지배인 김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가열로 2기를 열풍순환식가열로로 개조함으로써 철강재생산에 드는 무연탄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였으며 국가과학원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콤퓨터지원체계프로그람에 의한 탄소류황고속분석기를 제작도입하여 쇠물에 대한 화학조성분석을 단 몇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더 높은 철강재생산성과로 받들려는 용해공들과 압연공들을 비롯한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에 의해 청진강재공장은 지난 5월 철강재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본사기자 리남호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강동군 강동소학교 일군들과 교직원들

아달산기슭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강동군 강동소학교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활동연구실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이 최상의 수준에서 밝고 정중히 꾸려지고 다기능화된 교실들,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 실험실습실들도 나무랄데 없다. 야외학습터, 교통안전교양마당, 종합편의시설을 갖춘 수영장이며 토끼사도 손색이 없다.

학교를 돌아본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원들의 반영도 대단히 좋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몰라보게 변모된데는 교장 장애순동무와 교직원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된 후 어느날이였다.

수십년이 된 교사를 바라보며 교장은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당의 의도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문제를 놓고 그는 여러날 동안 사색을 무르익혀나갔다.

2층으로 된 한동의 교사를 더 건설하면 모자라던 교실문제를 풀수 있었다. 여기에 야외학습터와 교재림, 교통안전교양마당이며 종합편의시설을 갖춘 수영장도 멋있게 건설하자.

이런 계획을 안고 그는 전문설계기관들을 찾아 걸음도 많이 하였다.

이렇게 완성한 학교의 새 모습을 보여주는 형성안을 게시하였을 때 교직원들은 놀라와하였다. 대부분이 녀성교원들인 조건에서 짧은 기간에 그처럼 방대한 공사과제를 해낼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물론 헐치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일떠세우려는것이 당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의 심장이 당정책관철로 높뛸 때 못해낼 일이 없을것입니다.》

교장의 말은 길지 않았으나 교직원들의 가슴속에 시대앞에 지닌 교육자의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심어주었다.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이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리고 많은 건설자재를 해결하여 학교에 보내주었다.

수업을 보장하고 자질향상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교원들은 긴장한 건설전투를 벌려나갔다. 김경희, 최창화, 진윤희, 리윤실동무를 비롯한 분과장들이 앞장에 섰다. 자체로 수많은 블로크를 찍어 벽체를 축조하고 층막공사도 하면서 새 교사를 일떠세우는 일은 헐치 않았다.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선 교직원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은 교장은 더욱 분발하여 뛰고 또 뛰였다. 건설이 중단되지 않게 그는 해당 단위와 련계하여 먼 곳에서 기중기를 끌어오기도 하고 층막공사에 쓰일 부재들도 운반해왔다.

그럴수록 교직원들인 리영남, 윤철룡동무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더 많은 짐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감들을 도맡아나섰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과 군의 기초식품공장, 종합식당을 비롯한 후원단체들이 학교건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외장재를 칠한 외벽과 함께 색철판기와를 얹고 번듯하게 일떠선 새 교사는 볼수록 멋이 있었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무행정사업의 정보화수준을 높이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꾸리는것과 함께 도서실, 콤퓨터실, 자연실, 공작실, 음악무용실 등도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콩우유공급실과 리발실, 한증탕을 갖춘 목욕탕과 잇닿은 수영장이며 교통안전교양마당, 야외학습터, 교재림, 토끼사를 련이어 건설하였다. 이로 하여 외부환경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처럼 학교의 면모가 일신되는 속에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결과 10월8일모범교수자대렬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실력도 나날이 높아졌다.

해마다 학교가 군적으로 소학교부문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에서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데는 이렇듯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이곳 교원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지금 강동소학교의 교육자들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당의 전략적구호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비약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

오늘 우리 공화국은 교육사업을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고있다.

국제사회는 과학과 교육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으면서 그에 토대하여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는 이 세상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뿐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에 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자말푸르지부 위원장은 조선의 교육제도는 우월하고 선진적인 제도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도 정연하게 세워져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공부하고있다, 최근 조선이 거둔 성과들은 모두 국내과학자, 기술자들의 노력에 의한것이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의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것은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교육사업을 한시도 중단할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과학교육발전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인터네트신문 《비다 이 아르떼》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시킨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는 중등일반교육을 중시하고 그 기간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그러나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기간을 늘이려면 너무도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는것으로 하여 아무 나라나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조선이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히 부유해서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하는것은 아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던 조선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부터 오늘까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 헤아릴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어왔다.

이런 나라가 모든 학생들을 국가의 전적인 부담으로 교육시킨다는것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국가정책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리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조선에서는 학교교육뿐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등 온갖 형태의 교육도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처럼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민주풍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조선에서는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벅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는 고등교육체계가 준비되고 중요대학들의 원격교육체계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세워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넓은 길이 열리였다는 글을 실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 하나만 놓고서도 보다 휘황찬란하게 변모될 조선의 앞날을 그려볼수 있다. 조선은 가까운 시일내에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려 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구상은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는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사업에서도 대혁명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조선의 앞날이 기대된다.》라는 글도 올렸다.

로씨야의 데웨-로쓰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과학연구기관들을 찾고 찾으신다, 그이의 지도밑에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이 높은 속도로 실현되고있으며 모든 분야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는 새로운 기적창조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에 활력을 부어주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풍고대학생 및 학생련맹대표단 단장은 조선의 과학기술전당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어른들뿐만아니라 학생소년들도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는 이곳은 말그대로 과학의 대전당이다.

과학기술정보봉사능력과 교육조건을 원만히 갖춘 배움의 전당에서 어린이들까지 열심히 학습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느껴지는바가 크다.

조선은 머지않아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릴것이다.》

베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 단장도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 전당에 차넘치는 과학탐구의 열기는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의 과학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되며 이를 통해 조선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웅대한 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알수 있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공화국은 세계에 그 위용을 높이 떨칠것이다.

정 원 준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보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 력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보도하고있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불레찐은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였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던 사변이다.

전세계가 싱가포르수뇌회담을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다.

이번 조미수뇌상봉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흐름을 추동하고 조미관계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네팔신문 《아르판》, 로므니아신문 《아제르쁘레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에꽈도르 김정일도서관, 브라질공산당,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뜨. 루》와 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뽀르뚜칼조선친선협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민주풍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우의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신 소식, 싱가포르공화국에 도착하시여 수상을 접견하시고 여러 대상을 참관하신 소식,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남조선단체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국민주권련대, 대학생진보련합, 청년당이 21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정부가 《독도령유권》을 한사코 주장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침략과 군국주의부활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행태를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민족공조로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일본의 독도강탈야욕이 도를 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독도문제에서 일본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나오고있다고 회견문은 비난하였다.

더우기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고 방위백서에도 《독도령유권》주장을 담았으며 교과서에도 같은 내용을 서술하였다고 회견문은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을 한치도 용납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일본은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분위기에 끼여들지 못해 안달이 나 하며 지역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있다고 회견문은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강탈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이것은 헛된 꿈이 될것이라고 회견문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료녕성에서의 환경보호사업

중국 료녕성에서 환경보호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성에서는 지난 4월초부터 강과 호수들에 대한 오물처리 및 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결과 성적으로 2개월동안에 125만㎥의 오물을 처리하였다. 최근 료녕성 수리청이 밝혔다.

나이제리아대통령 나라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

나이제리아대통령 무함마두 부하리가 최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할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나이제리아는 방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 잠재력은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지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강대한 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수리아정부군 테로분자들로 부터 넓은 지역을 해방

수리아정부군이 최근 며칠동안에 약 4 900㎢의 지역을 테로분자들의 수중에서 해방하였다. 20일 이 나라의 사나통신은 교대도시인 팔미라의 동부지역에서 2 400㎢의 령토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정부군이 데이르 알 주르도에서 많은 《이슬람교국가》테로분자들을 소탕한 후 약 1 200㎢의 지역을 탈환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군은 또한 수도 디마스끄의 남부지역에서 약 1 300㎢의 령토를 테로분자들로부터 빼앗아냈다고 한다.

피난민문제해결노력

케니아가 최근 주변나라들로부터 피난해온 사람들의 처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20일 정부는 외국인피난민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양성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을 사회경제활동에 적극 인입시키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피난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 나라에는 분쟁이 지속되고있는 아프리카뿔지역과 대호수지역 나라들에서 넘어온 피난민이 30만명에 달하고있다.

범죄방지조치

파키스탄정부가 20일 비법적인 자금류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자금세척 및 테로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들에서는 봉사대상들에 대한 신원확인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 범죄자들의 자금세척 및 류동을 철저히 차단하게 된다.

에이즈비루스 전파

뉴질랜드에서 에이즈비루스가 전파되고있다. 20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197명이 에이즈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역패당의 통할수 없는 민심수습놀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후 그 무슨 《반성》이니, 《쇄신》이니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발광하고있어 만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3일 남조선에서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하나 파멸의 위기를 모면하고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였다. 하지만 보수패거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사상 류례없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17개 지역의 광역시장, 도지사선거결과를 놓고보면 《자유한국당》은 자기의 《터밭》이라고 자처하던 부산과 경상남도에서까지 여당세력에게 패하고 겨우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자리만 차지하였다.

지방자치제선거와 동시에 12곳에서 치르어진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것들은 불과 1석밖에 얻지 못하였다. 각 지역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도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에게 완전히 밀리였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이번 선거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남조선인민들은 집권기간 저지른 만고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서도 여전히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며 민심에 도전하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보수패거리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심과 환멸을 느끼며 역적무리들에게 쓰디쓴 참패를 안겼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선거에서 궤멸적참패를 당하고 허둥대는 가련한 몰골을 보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죄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라고 한결같이 저주를 보내고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해 다시금 명백히 확인된 민심을 바로 보고 력사무대에서 사라질 대신 《사과》니, 《쇄신》이니 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반역당의 살길을 열어보려고 분주랑을 피우고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것들은 《국회》앞에서 저들의 잘못에 대해 비는 내용의 구호판을 내들고 무릎을 꿇고앉아 머리를 조아리는 광대극을 펼쳐놓았다. 얼마전에는 원내대변인이라는자를 내세워 《참담한 현실앞에 사죄드린다.》느니, 《다시 태어나겠다.》느니 하는 미사려구를 잔뜩 늘어놓으며 등돌린 민심을 끄당겨보려고 꾀하였다. 이 반역당의 원내대표라는자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제법 노죽을 피우면서 그 무슨 《혁신》에 대해 또다시 운운하였다.

보수패당의 이런 서푼짜리 연극에 남조선 각계가 역겨워하며 랭소를 퍼붓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무릎을 꿇고 빌어도 믿을수 없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고 민중에게 머리를 조아린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다시 태여나도 벌써 열번은 다시 태여나야 했을것이다.

그러기에 차거운 대리석바닥에 무릎꿇은 〈자유한국당〉소속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걸치레에 불과하다는것이 대다수 민중의 솔직한 심정이다.》

《자유한국당》의 보수패거리들이 아무리 《반성》이니, 《혁신》이니 하고 말장난을 하며 귀맛좋은 소리를 늘어놓아도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을 당장 들이닥친 위기를 모면하고 민심을 얼려넘기기 위한 기만극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민심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정치적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그 무슨 《쇄신》에 대해 떠들었다. 《새누리당》시기인 지난 2014년의 지방자치제선거와 2016년의 《국회》의원선거때에도 참패의 고배를 마신 보수패거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요사스럽게 놀아대며 성난 민심을 꼬드겼다.

하지만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보수패거리들은 만고역적이며 인간오작품인 박근혜역도의 더러운 치마폭에 매달려 사대매국과 파쑈폭압, 부정부패와 반인민적악정,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면서 민족앞에 온갖 죄악을 덧쌓았다. 최근에도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남조선 각계가 열렬히 지지환영하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그 리행을 가로막기 위해 지랄발광함으로써 조금도 변하지 않은 저들의 대결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자유한국당》것들이 제아무리 골백번 《반성》과 《쇄신》을 줴쳐대도 까마귀는 영원히 백로로 될수 없듯이 가증스러운 천하의 반역무리의 추악한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남조선인민들은 똑똑히 꿰뚫어보고있다.

중오의 도마우에 오른 역적패당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면서 파멸의 함정에서 헤여나려고 발악하고있으나 그것은 쓸데없는노릇이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민심수습책동은 결코 통할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쇄신》이니, 《혁신》이니 하며 이미 처박힌 력사의 무덤속에서 게바라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대로 썩어문드러지라는것이 분노한 남조선 각계의 웨침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반역무리들은 잔꾀를 부리며 민심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지체없이 력사무대에서 사라져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오늘의 세계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얼마전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는 제6차 지역간경제연단 《발전지역들, 새로운 과업과 해결책, 전망》이 진행되였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이 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였다.

그는 축하문에서 국가경제의 현대화 및 기술갱신과 시장경쟁력 및 수출능력제고 그리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제품생산을 위한 유능한 일군양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연단의 주요의제로 되고있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는데서 해당 지역들과 기업들, 교육체계가 커다란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서 로씨야정부가 교육을 중시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 미래의 담보이다.

아무리 크고 중대한 사업일지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에는 교육사업이 있다.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데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올해에도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국가발전계획작성이나 나라들사이의 교류와 협조에서 교육은 빼놓을수 없는 하나의 항목으로 되고있다.

지난 2일 에짚트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하면서 앞으로 4년동안 보건 및 교육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룰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와 아랍추장국련방이 교육과학기관들사이의 직접적인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의 대학과 과학원, 과학쎈터, 박물관, 도서관, 청년 및 체육기관, 고문서기관들사이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밖에도 까타르와 오만, 이란과 파키스탄이 교육분야에서의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많은 나라들이 교류와 협조를 통해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있다.

나이제리아정부는 부족되는 초등학교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 주에서 시범적으로 300명의 교원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르완다정부는 60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관리운영과 교수교양을 개선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퇴치하며 직업학교들과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실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에 진입하였다.

여러 나라들이 정규적인 고등교육뿐아니라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인재대렬을 확대하고 그들이 사회경제발전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또고대통령은 어느 한 연설에서 청년들의 교육문제에 힘을 넣을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농업, 건설, 운수, 정보분야와 관련한 10개의 직업학교를 창설할것이라고 밝혔다.

콤퓨터망을 통한 교육사업이 활발해지고있다.

현재 세계적인 대학협회들의 원격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3 0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앞으로 콤퓨터망을 통한 수강생이 대폭 늘어나 2020년경에는 그 수가 세계적으로 총 1억 5 000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얼마전 중국의 한 인터네트웨브싸이트는 78살 난 농민이 대학공부를 한다는 소식을 실었다.

그는 농업대학의 원격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왜 공부를 하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주변사람들이 집짐승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려고 배운다고 말하였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경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식의 갱신주기가 짧아지고있는 현실은 부단한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 농촌의 나이많은 로인이 집짐승을 기르자고 해도 재교육이 필요한데 하물며 첨단화되여가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고 하면서 재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있다.

국가발전의 기둥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적극화될것이다.

본사기자

근절되기 힘든 일본에서의 녀성차별행위

일본에서 녀성기자에 대한 전 재무성 관리의 성희롱추문사건이 드러난것을 계기로 하여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보도부문의 녀성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네트를 통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였다.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취재활동과정에 자기들이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일본의료로동조합련합회도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의료부문 등에서 일하는 20대부터 30대사이의 사람들가운데서 12%가 지난 3년동안에 성희롱피해를 입었다. 2016년에 근로녀성의 30%가 성희롱피해를 받았다는 자료도 있다.

지난 5월말에는 도꾜도의 한 시장이 여러명의 녀성직원들에게 성희롱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에 대처한다고 하는 일본당국의 처사가 가관이다.

최근 일본당국은 전 재무성 사무차관 등 정부관리들의 성희롱문제와 관련한 긴급대책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정부관리들이 의무적으로 성희롱근절을 위한 강습을 받아야 하며 그를 거쳐야만 승급할수 있다는것이다.

그야말로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강습만으로 성희롱행위들을 근절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당국은 증앙과 지방의 정부기관들에서 우심하게 벌어지는 성희롱행위를 가볍게 대하고있다.

얼마전 국제로동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기준제정문제를 놓고 론의가 벌어졌다.

많은 나라들이 구속력있는 국제적기준의 제정을 강하게 호소하였지만 일본은 권고나 하는 식으로 만드는것이 좋을듯 하다고 하면서 기준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수정안을 련이어 제출하였다.

일본의 한 언론은 이에 대해 국내법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적기준에 대처하는것이 어렵기때문이라고 평하였다. 그것 역시 일본당국의 행위를 비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 성희롱금지법이 없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이것을 구실로 성희롱행위를 정당화하고있다.

지난 5월 일본당국은 《현행법령에 성희롱죄라는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밝힌 정부답변서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성희롱과 관련한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였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보류되였다.

일본당국이 성희롱행위를 문제시하려 하지 않는 리유를 여러가지로 분석해볼수 있다.

우선 일본에서 력사적으로 녀성관이 옳바로 서있지 못한데 있다.

인간사회의 존엄있는 성원인 녀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것은 초보적인 륜리도덕이다. 때문에 문명의 발전과 함께 세계는 녀성차별, 녀성무시행위를 인간의 가장 큰 수치로 간주하면서 녀성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세계적범위에서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역행해왔다. 녀성들을 단순히 아이낳는 도구로, 노리개로 보고 대하는것이 일본의 뿌리깊은 녀성관이다.

특대형반인륜범죄인 일본군 성노예범죄행위는 그에 대한 명백한 증시이다.

우리 나라의 녀성들을 국가적인 폭력과 강권으로 끌어간 일제는 그들에게 야만적인 성폭행을 가하였다.

언제인가 일본의 한 녀성은 일본잡지 《세까이》에 발표한 글에서 일본군이 자국처녀들을 성노예로 끌어가지 않은것은 인륜도덕이나 인권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적자원의 재생산력으로서의 일본녀성들의 생식능력이 없어지는것을 두려워했기때문이라고 썼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서 녀성들에 대한 희롱이 근절될리 만무한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이 성희롱행위를 범죄로 법화하고 성희롱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경우 과거 성노예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갈 길이 막히게 된다는데 있다.

일본은 과거에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살이를 강요한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우겨대고있다. 만일 일본이 성희롱행위를 범죄라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과거의 성노예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성희롱을 범죄로 법화하는것을 호박쓰고 돼지굴에 들어가는것으로 여기고있다, 회피한다고 하여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다, 오히려 죄가 더 커질뿐이다, 비를 피하려고 강물에 뛰여드는것과 같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있다.

또한 현 일본당국이 궁지에서 헤여나올수 없다는데 있다.

성희롱행위를 한 전 재무성 사무차관을 비호두둔하고있는 부수상 겸 재무상 아소도 성희롱발언을 한것이 드러나 일본각지에서는 그를 규탄하는 항의행동들이 벌어지고있다. 아베와 아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악폐는 제거되지 않을것이다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아베정권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일본에서 성희롱문제는 단순히 륜리적, 법적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중한 정치적문제, 인권문제이다.

본사기자 손 소 연

팔레스티나에 대한 국제적지지

얼마전 유엔총회 비상회의에서 팔레스티나문제와 관련한 표결이 진행되였다.

유엔성원국들중 120개 나라가 팔레스티나령토 특히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인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할데 대한 결의를 지지하였다. 결의는 팔레스티나민간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력사용을 규탄하였으며 팔레스티나인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할것을 호소하였다.

팔레스티나대통령은 이것이 팔레스티나인들의 권리와 국제적인 정의 및 법에 있어서 하나의 승리로 된다고 밝히면서 지지투표한 국가들에 사의를 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의 령토강탈책동과 팔레스티나인학살만행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을 계속 가하고있으며 유태인정착촌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자국주재 대사관들을 꾸드스에로 옮길것을 다른 나라들에 구걸하고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의 폭압만행을 규탄하는 항의시위과정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던 21살 난 팔레스티나위생병이 가자경계선울타리부근에서 이스라엘저격수의 총에 맞아죽었다. 그 다음날 수천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대규모장례식에서 그 위생병과 영결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아랍국가련맹을 비롯하여 세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아랍국가련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는 이스라엘의 테로주의의 장에서 새로운 련속으로 된다. 이스라엘은 의료팀들과 구조대에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있고 기자들을 추적하고 목표로 삼고있으며 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아랍국가련맹 총서기는 국제공동체가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압력을 가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자들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것을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르단외무상은 유럽동맹 성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서 꾸드스를 팔레스티나의 수도로 인정할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가자지대에서 감행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대학살을 조사하는 국제위원회의 구성을 지지하여 즉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팔레스티나인들의 합법적권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이와 같은 립장을 밝히였다. 이란에서는 팔레스티나인들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집회도 진행되였다.

이번 유엔총회 비상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은 이러한 흐름의 반영으로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시금 확인해주는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ㄱ-181099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